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95호 | 2016년 5월



## Venture Capital Newsletter 95호 | 2016년 5월

---

[ 정기구독 신청문의, 기고 보내주실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TEL : 02-2156-2103

FAX : 02-2156-2110

E-mail : newsletter@kvca.co.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목 차

## 뉴스&리뷰

○ KVCA 소식 .....	04
협회장 동정	
제2차 이사회	
회원수첩 발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편집자 노트 .....	06
○ 연수원 소식 .....	08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1차(O2O 시장분석)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 중소기업 R&D 및 투자지원 사업 .....	10
기술혁신개발사업	
M&A활성화 지원사업	
강원지역 벤처투자 로드쇼	
벤처투자 사랑방	
○ 유망 투자기업 탐방 .....	12

## 이슈

○ M&A 시장의 이해 및 활성화 방안 .....	14
○ 벤처캐피탈 관련 법률 Q&A .....	17
○ VC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 .....	17

## 시장동향

○ 3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18
○ 1분기 미국 벤처투자시장 .....	24
○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	27

## 멤버십

○ 신규회원사 소개 .....	28
○ 회원사 소식 .....	30





## KVCA 소식

### 【 협회장 동정 】



#### 제4회 머니투데이 글로벌 컨퍼런스 '2016 키플랫폼' VIP 리셉션 참석

4월 25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한국핀테크협회 창립총회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총회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송희경 의원, 금융결제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금융보험원장, 신용정보원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내외빈 축사, 설립 경과 보고, 주요 정책 보고 및 추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채용박람회 개막식 참석

본회 이용성 회장은 4월 28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 홈앤쇼핑, IBK기업은행이 주최하는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박람회에는 참여기업 300여개사, 구직자 10,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단협회장단 공동 기자회견, 일자리 창출 결의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범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청년실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개최된 대규모 청년채용박람회로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 【 제2차 이사회 】

본회는 4월 27일 역삼동 벨레상스 호텔에서 201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협회 사업추진 실적, 정관개정, 사업준비금의 사용, 위원회 개편 및 운영방안 등으로 총 임원진 32명 중 21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정관개정 등을 위해 이사회 이후 임시총회도 5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 이사회 안건

보고안건	1/4분기 벤처투자 시장 동향
	1/4분기 협회 사업추진 현황
	‘TIPS’ 소개 및 ‘더벤처스’ 사건 개요
의결안건	정관개정
	사업준비금의 사용
	특별회원 가입 승인
토의안건	위원회 개편 및 운영방안

### 【 글로벌 IPO(일본) 설명회 】

본회는 4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두시간 동안 일본 IPO시장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동경거래소(TSE) Masayuki Yokota 부장 등 현지 관계자가 2015년 일본 IPO시장 현황 및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내 VC를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업계의 다양한 회수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동경거래소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 회원수첩 발간 】

우리 업계 참여자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회원사 임직원 명부가 5월초에 발간되었다. 각사의 임직원 현황은 4월말 기준이며 임직원 수에 맞게 각 회원사로 배송되었다.

### 【 서울시립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분야 사업의 협력과 지원에 힘쓰고 인프라 공유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해 양기관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4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벤처캐피탈을 만나본적이 없다는데...

**이의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기술경영학박사)

‘더 벤처스’ 사건으로 벤처투자업계가 언론의 유쾌하지 못한 주목을 받는 듯하다. 중소기업청장이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지만 벤처캐피탈업계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과거의 거품논쟁이나 집단매도의 악몽으로 속이 편치 않다. 따지고 보면 벤처캐피탈하고는 무관하다시피 한데도 말이다.

우리사회 아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도 크라우드펀딩, 엔젤, 마이크로VC,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비슷한 주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하물며 ‘캐피탈’이라는 이름만으로 외국계 대부업체를 연상하는 사람이 꽤 많다. 홍보의 중요성도 느끼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벤처캐피탈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의 구전이다. 그들이 “우리는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받은 업체”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1,045개사가 투자 받았고 이중 상당수는 머지않아 과거의 사례처럼 코스닥상장기업이 된다는 긍정적 성과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벤처캐피탈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처럼 인식되어 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고 설사 알아내도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수많은 기업인들



로부터 “벤처캐피탈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에 골머리를 앓을 정도이다. 대부분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거나 자신의 기술이 엄청난데 세상이 안 알아준다는 분들도 많다. 간혹 본회에서 운영하는 <벤처투자 사랑방>을 소개하지만 제한된 기업에만 기회가 주어진다. 투자자와 기업의 만남은 선남선녀의 만남에 못지않은 ‘좋은 일’인데도 말이다. 지난 4월22일 강원대학교에 소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강원지역 벤처투자로드쇼’에는 굿은비가 내리는 가운데 24개의 기업들이 투자상담 및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투자자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의 스타트업들에게는 찾아오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투자에 대한 기대와 실패의 우려도 교차했을 것이다. 실무팀장이나 심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원도가 오히려 부산보다 관심이 크다”고 하니 참가자들은 꽤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마침 이 행사 직후 서울에서 중소기업청장님과 간담이 있었다. “벤처캐피탈을 접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투자처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라고 건의했더니 그 자리에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며 수첩을 꺼내 적으셨다.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만남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다. 펀드를 유치하는 것도 공급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결국은 투자의 성패여부는 ‘알찬 투자대상기업’을 찾는데 있으므로 양측의 만남의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원화된 벤처투자로드쇼는 우리 협회가 주관하되 중기청, KVIC과 공동개최하도록 정리가 되었다.

최근 410억원의 한영이노베이션펀드를 조성한 영국 벤처캐피탈 브라이트스타의 대표인 크리스 윈터는 한국의 벤처투자자와 관련해 두 가지 인상적인 발언을 했다.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가 초기보다는 기업공개직전의 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벤처투자자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 윈터는 이런 현상이 낯설었던 모양이다. 그에게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초기기업수가 전체 피투자기업의 47%라고 전해야 할 것 같다. 중소기업이 벤처캐피탈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답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크리스 윈터가 2~3년 후에는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은 각 분야별 트렌드를 알아보고 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4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벤처캐피탈리스트부터 애니메이션 및 음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업계 동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자: 2016년 4월 19일 ~ 4월 21일(3일 출석)
- 장소: 강남역 동찬빌딩 7층 JS캠퍼스 제1강의실

내 용	강 사
국내외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전망	건국대학교 교수 이병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영화	이경미 감독 *미쓰 홍당무 / 비밀은 없다(16년 개봉예정)
공연 투자 리얼스토리,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키움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고성호
영화사(제작+배급) 지분투자 사례	티지씨케이파트너스 대표 김지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모바일 콘텐츠	포도트리 이사 차상훈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게임	게임빌 고문 현능호
게임 투자 리얼스토리,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선임심사역 박영찬
프로젝트 투자금 회수와 계약실무 사례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이사 허수영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및 청산 실무	
Hot콘텐츠 들여다보기(1) - 360VR 콘텐츠	아바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실장 백지원
Hot콘텐츠 들여다보기(2) - 웹드라마	트웬티세븐 대표 차일웅
영화 투자 리얼스토리,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대성창업투자 이사 김승현
중국시장 진출 사례 - 애니메이션 및 특수영상관	레드로버 전무 정면영
문화콘텐츠 펀드의 운영 사례 및 회수 전략	케이티비네트워크 상무 이승호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 정책 방향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이승흠



## 【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 O2O 시장 분석 】



스팟 아카데미는 최근 이슈산업 또는 교육수요가 높은 업무를 주제로 선정하여 키포인트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연중 수시로 개최한다. 1차 교육은 O2O 시장 분석을 주제로 4월 6일에 진행하였으며 2차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 분석을 주제로 5월 3일에 개최 예정이다.

- 일자: 2016년 4월 6일 (1일 출석)
- 장소: 교대역 GJ빌딩 2층 로앤비 교육센터 L강의실

내 용	강 사
압컴퍼니 사례	압컴퍼니 대표 안경훈
모바일 초기기업 투자 사례 분석 및 전망	쿠팡 투자개발총괄 정상엽
중국 O2O 서비스 사례	테크노트 기자 유채원 *중국 스타트업 미디어



## 【 기술혁신개발사업 】

## ○ 투자연계과제 추진일정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의 운영기관인 본회는 지난 1월에 개최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투자성 평가와 현장조사 그리고 대면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52개사)을 선정하였다. 본회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전략 세미나 △멘토링 △IR 및 상담회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온라인 IR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투자심사역 간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 멘토기관 선정 및 추진일정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수행기업 중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R&D에 필요한 투자, 특허,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에 멘토링을 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 멘토기관으로서 R&D 우수기업에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지난 4월 15일에 개최된 '2016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설명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동안 타 사업의 협약기업 대상 투자유치 멘토링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 【 M&amp;A활성화 지원사업 - 간담회, 워크숍 】



2016년도 M&A활성화 지원사업의 새로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본회는 지난 4월 7일과 28일, 'M&A 지원센터 간담회'와 'M&A 중개기관 워크숍'을 시작으로 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 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올해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계획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8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워크숍에는 중소기업청, 지원센터 뿐 아니라 중개기관, 벤처캐피탈 등도 함께 참석하여 매도매수를 희망하는 추천기업의 발표 및 중국의 M&A 성공사례 등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본회는 M&A 거래정보망 개편, M&A 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회의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M&A 활성화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 강원지역 벤처투자 로드쇼 】



본회는 지난 4월 21일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이날 센터에는 벤처캐피탈 16개사(투자심사역 19명) 및 강원지역 소재의 유망 중소기업 24개사가 참석하여, 투자유치 전략 상담회 및 투자유치설명회(IR)를 가졌다. 한편 반기별로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을 초청하는 ‘지방 유망기업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하는데 5월에는 수도권에서 열릴 전망이다.

## 【 벤처투자 사랑방 】



지난 4월 26일 본 협회에서 개최한 벤처투자 상담 프로그램인 ‘벤처투자 사랑방’에 중소기업 11개사와 벤처캐피탈 4개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참여 기업은 대부분 설립 5년 이내로, 제조업부터 식품, 의료기기, ICT 서비스 등의 업종이다. 참여 벤처캐피탈은 송현인베스트먼트, 안강벤처투자, 솔본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사로 투자유치에 필요한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 기업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본회가 운영중인 '벤처투자 사랑방'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심사역으로부터 직접 투자유치 가능성을 진단받고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전략적으로 지도받게 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심사역 역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벤처업계 전체의 윈윈 가능한 전략적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한 '벤처투자 사랑방'에 참여한 기업 중 3개사를 만나 기업 이야기, 투자유치 준비 과정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 3인 3색 스타트업 인터뷰 】



곽형주 가온에스엔제이 대표이사

- 기업명: 가온에스엔제이
- 대표자명: 곽형주
- 설립일: 2015.02.11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 주요 서비스: 소상공인용 쇼핑앱
- 매출액: 9.5억원('15년 기준)
- 종업원 수: 60명
- 주요 경영상황
  - 어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35만 회
  - 고객사 136개사 확보



임수일 플로우나인 대표이사

- 기업명: 플로우나인
- 대표자명: 임수일, 박영중
- 설립일: 2015.07.24
- 소재지: 서울시 중구
- 주요 서비스: SNS 광고솔루션 플랫폼
- 종업원 수: 12명
- 주요 경영상황
  - 페이스북코리아와 광고 공식파트너 체결예정
  - 11번가등 쇼핑몰 및 병원 SNS 광고 대행



박해준 에이치티씨 이사

- 기업명: 에이치티씨
- 대표자명: 허덕재
- 설립일: 2013.03.19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 주요 제품: 가구 및 건축자재
- 매출액: 13.6억원('15년 기준)
- 종업원 수: 15명
- 주요 경영상황
  - 중국 법인 설립('14)
  - 남양주 가구공장 설립('15)



[가온에스엔제이가 서비스 중인 '모두마트']

Q. 각자 기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가온에스엔제이 곽형주 대표(이하 곽) :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모바일 O2O 플랫폼 서비스 '모두마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앱에서 장을 보듯이 동네 마트에서도 앱을 다운받음으로써 쇼핑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 불편함에 끼워져 있거나 현관문 앞에 붙여진 전단지를 모바일로 옮겨왔으니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치티씨 물류창고]



[플로우나인의 'AD Toy' 광고 플랫폼]

에이치티씨 박해준 이사(이하 박) : 우리 회사는 KCC건설, 두산건설 등 굴지의 국내 대기업에 빌트인 가구와 타일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으로는 기존 대리석보다 3배 이상의 공간 효율성과 20~25%이상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대리석 타일이 있죠. 국내에서 검증받은 실력을 바탕으로 '14년에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법인을 설립하고 푸티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플로우나인 임수일 대표(이하 임) : 저희는 500V(오백볼트)의 얼라이언스 스타트업으로 아시아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SNS 광고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광고비로 집행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광고비는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대행 서비스를 구상하다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Q. 오늘 상담을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가 무엇인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움이 되셨나요?**

A.

임 : 저는 이전에도 피칭데이, IR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을 접한 적이 있어요. 게다가 오늘 만난 심사역은 한번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속한 애플테크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원래 있는 분이셨기에 투자 준비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곽 : 이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적은 있지만 투자는 낯설었습니다. 사실 투자가 우리 기업에 맞는 자금 조달 전략인지 자체에도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 오늘은 '일종의 맛보기'라는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행히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점과 우리 사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상담 시간이 한 시간 밖에 되지 않아 좀 아쉬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성장전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임 : 고객의 광고 목적과 대상을 분석하여 맞춤형, 통합형 광고를 제공하는 저희 기술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큼니다. 페이스북코리아와 업무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주 타겟인 소상공인이 페이스북을 플랫폼 삼아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중국 등 해외 진출 준비도 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랑방을 계기로 저희 기업의 가능성에 투자하고 성장 파트너가 되어 줄 투자자를 하루 빨리 만났으면 합니다.

곽 : 작년 한해는 중소 마트전용 앱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차원에서 마트로 직접 영업을 뛰었습니다. 덕분에 136개사의 고객 점포를 모집했고 월간 1만 5천건의 주문이 이루어지고 매월 6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장세를 타서 1,000개 이상의 고객 점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영 자금을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마트 사이에서 동네마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골목 상권 위주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 : 저희 회사는 지난 2013년도에 설립한 초기기업이지만 이듬해 중국에 건축자재 전시장, 남양주 가구공장 설립에 이어 작년 말에는 부산에도 빌트인 가구 전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B2B 및 B2C 사업 모두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현재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중인 신소재 바닥재와 폐기물 처리기와 같은 신규 사업에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회사의 납품 경력과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도 투자자도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M&A 시장의 이해 및 활성화 방안

본회는 지난 3월 '2016년 M&A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합니다

M&A 거래건수도 전년대비 40% 가까이 증가하여 약 30,000건에 달할 정도로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매년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김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부장

### M&A시장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 성장을 둔화, 수출부진 등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경기둔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향후 10년의 변화가 과거 50년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변화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와 같은 경영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으며,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만이 향후 새로운 성공신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성공신화를 위하여 기업은 반드시 성장하여야 하며, 성장을 위해 M&A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M&A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급성장하여 2015년 기준 전년대비 32% 증가한 5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M&A 거래건수도 전년대비 40% 가까이 증가하여 약 30,000건에 달할 정도로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매년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M&A 시장이 지속적인 호황을 보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 정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등 M&A 관련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한 것도 M&A 활성화에 기여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저금리에 의존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어렵게 회사를 운영해오던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M&A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M&A 시장도 글로벌 M&A 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2015년 현재 국내 M&A 시장규모는 약 1,200억 달러, 거래건수는 660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체 글로벌 M&A 시장 대비 각각 2.4%, 2.2%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M&A 시장의 급성장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진입하면서 각 기업의 주력사업 성장 동력 감소 및 생산성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 M&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M&A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의 효율성과 기업주의 마인드 변화 등의 매물증가도 M&A 시장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IT·자동차·건설·금융 등 기존 주요 산업군 뿐만 아니라 바이오·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차세대 산업군으로 M&A가 확대되어 국내 M&A 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M&A 성공·실패사례 소개 및 의미

2015년 국내 사용자 900만명에 달하는 무료 네비게이션 서비스인 '김기사'를 개발한 록앤올 지분 100%를 다음카카오가 총액 626억원에 전격 인수하였다. 당시만 해도 너무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이 M&A

사례는 '제 값을 주고 기술과 생태계를 주고받는 M&A'의 주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김기사'의 방대한 교통정보와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을 기존 카카오프랫폼과 결합시켜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카카오 택시, 오토바이 기반 퀵서비스, 대리기사 서비스, 무인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M&A를 잘 활용한다면 매수기업은 초기 설립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인력, 기술, 사용자, 경영노하우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와 성장동력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통하여 더욱 큰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매도기업은 M&A를 통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차입금 또는 채권 등의 부채를 감소시켜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M&A는 매수기업과 매도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전략의 하나이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아무리 좋은 M&A 전략이라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외 기업들의 M&A가 실패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2011년 미국 거대기업인 휴렛팩커드가 검색엔진업체인 오토노미를 너무 비싼 가격에 인수한 후유증으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국 역대 최악의 인수합병 실패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M&A 실패사례를 분석해보면 M&A 추진 단계별로 다양한 실패원인이 존재하나, 가장 큰 이유는 M&A 성공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정확한 목표에 맞는 전략 수립,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후통합(PMI) 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 M&A 활성화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대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M&A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M&A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부족한 시장정보와 전문 중개기관의 부재 등 시장인프라 부족으로 투자자 중심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본회는 작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담당했던 M&A 활성화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M&A 거래정보망 개편, 제도개선, 다양한 M&A 홍보활동 등을 통한 실질적인 M&A활성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공기관 주도의 M&A 시장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M&A 플랫폼을 조성하여 정체되어 있는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거래정보가 유통되어 M&A의 성공사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성장과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본회가 추진하는 M&A 활성화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의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실질 DB와 가치평가에 강점을 보유한 벤처캐피탈과 자금 및 지원능력을 갖춘 대기업, 상장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술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과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A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둘째, 중개플랫폼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M&A 중개기관 중 우수 중개기관 선별 및 실적지표 개선과 실

질적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보유한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의 참여확대로 M&A 중개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셋째, 시장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공공기관 중심의 M&A거래정보망 운영은 시장의 다양한 수요와 거래형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지향적 사업추진을 통해 M&A에 대한 유연한 서비스 환경을 갖추나갈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M&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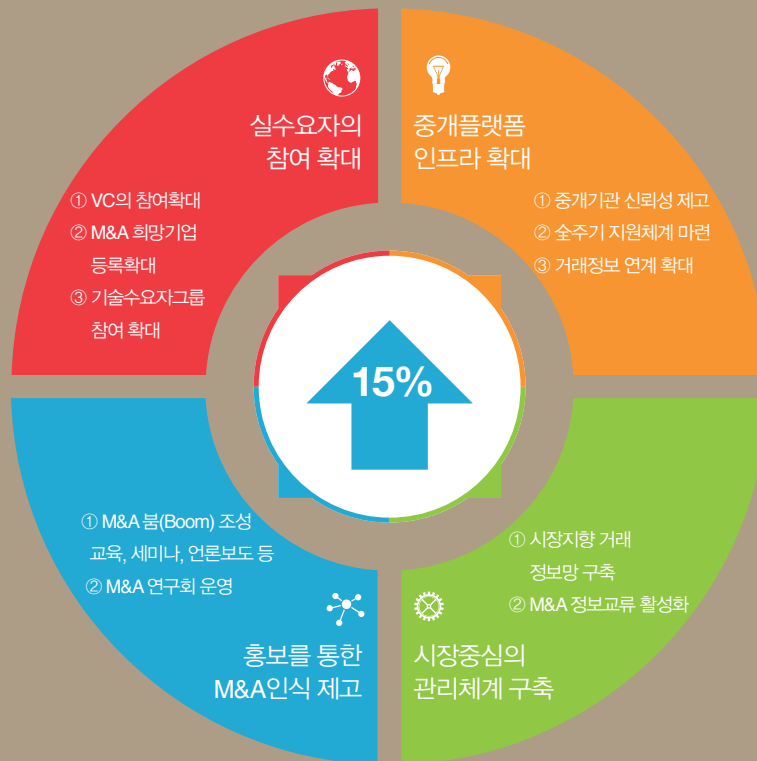
연구회를 개최하여 M&A 활성화를 위한 주제로 토론·연구하고, M&A 중개기관 및 지원센터와 지속적인 워크숍, 간담회 진행을 통해 M&A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협회는 앞으로 시장 중심의 M&A 중개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성장과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통해 2020년까지 M&A를 통한 투자회수비율을 15%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상생형 M&A플

랫폼'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2016년도 M&A 활성화지원사업 추진방향

###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상생형 M&A플랫폼' 조성 2020년 M&A 회수비중 15% 달성



시장 중심의 M&A 중개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성장과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 제고

벤처투자자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해석코너입니다.

###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관련 질권 쟁점 】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Q.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의 효력 발생요건은?

A.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질권자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합명회사 사원 지분권,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은 인적 회사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349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질권자로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 VC 관련 법령 및 제도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 2016.5.16까지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TEL : 042-481-4425)

### 개정이유

-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조합 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업무가 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이미 이관 완료됨
- \*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16.1.19)으로 창업투자조합 접수는 벤처캐피탈협회,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한국벤처투자(주)에 각각 위탁
- 벤처투자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벤처투자조합 접수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업무도 협회 등에 위탁 추진

### 주요내용

- 벤처투자 관련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벤처투자(주)를 추가
- 벤처투자조합의 접수를 벤처캐피탈협회에,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주)에 신규로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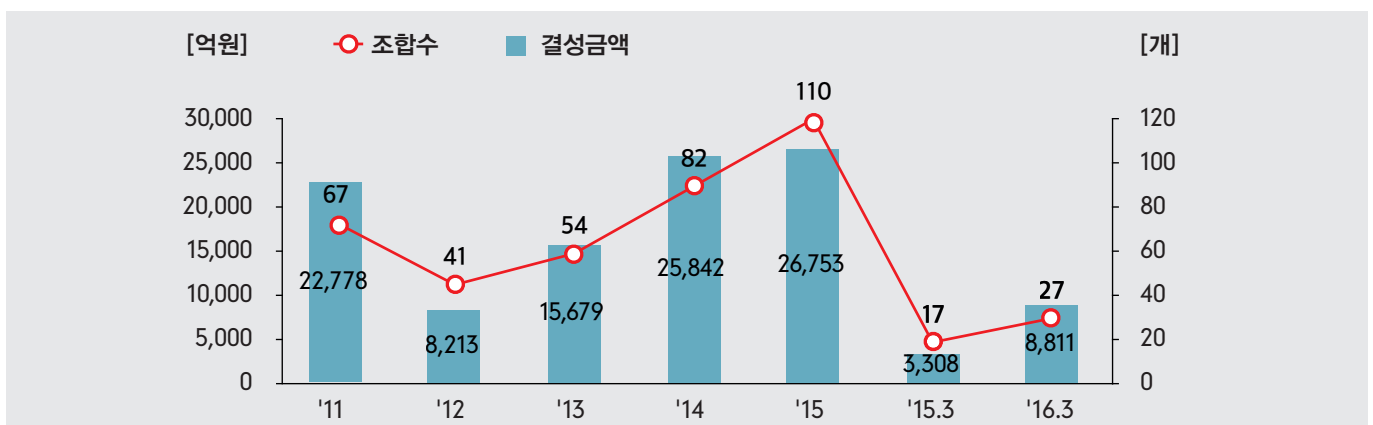




### 3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 3개의 마이크로VC 펀드를 포함한 18개 조합이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약정금액은 3,71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61억원 증가
- ▷ 신규투자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36억원(28.3%) 감소한 1,103억원으로 나타났으나, 활발한 신규투자처 발굴로 투자기업수는 25개(28.4%) 증가한 113개(16.3월기준)로 사상최고치
- ▷ IPO를 통한 회수가 28.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프로젝트 투자의 회수비중이 23.8%를 차지

#### 【 투자자원 】



금년 3월까지 27개 조합, 8,811억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동기(17개 조합, 3,380억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 수는 10개 (58.8%), 결성금액은 5,503억원(166.4%)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2월까지 9개가 결성되었던 조합은 3월에만 18개가 추가로 신규 결성되었으며, 이 중 모태출자를 받지 않은 조합이 12개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크로 펀드 3개가 신규 결성 되었고, 문화분야 투자 조합이 4개 결성되었다.

### 3월 신규결성조합 주요현황

[ 단위 : 억원 ]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투자분야	모태
케이런벤처스	KVF	케이런1호스타트업투자조합	170	창업초기 (마이크로)	O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KVF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1호펀드	152	창업초기 (마이크로)	O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KVF	케이브릿지1호스타트업투자조합	170	창업초기 (마이크로)	O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스노우볼투자조합2호	80	중소 / 벤처일반	X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DTNI-전남창조경제혁신펀드	115	중소 / 벤처일반	X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CCVC신디케이트리드펀드	52	중소 / 벤처일반	X
송현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송현K-클라우드펀드	26	중소 / 벤처일반	X
마젤란기술투자	창투조합	K-Growth클라우드투STEP펀드	68	중소 / 벤처일반	X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SGI-GS칼텍스전남바이오케미칼투자펀드	108	중소 / 벤처일반	X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조합	한국투자 유망서비스산업 투자조합	450	중소 / 벤처일반	X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CCVC-부산청년창업펀드	100	중소 / 벤처일반	O
케이티비네트웍	창투조합	KTBN8호투자조합	460	중소 / 벤처일반	X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KB우수기술기업투자조합	500	일반 기타	X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IBKC-SBI바이오펀드제1호	300	바이오	X
케이큐브벤처스	창투조합	카카오 성장나눔게임펀드	300	게임	X
키움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 키움문화벤처제2호투자 조합	155	공연	O
케이티비네트웍	창투조합	KTBN9호디지털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	300	문화 기타	O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부산-롯데창조영화펀드	210	영상	X

금년 3월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벤처캐피탈 19.5%, 정책기관이 15.6%, 일반법인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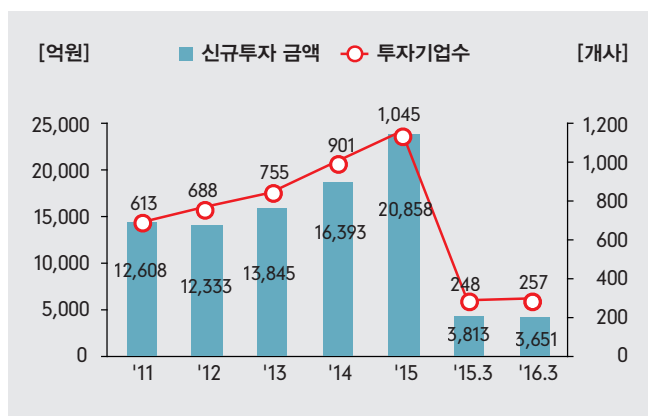
개별출자자별로는 산업은행이 1,480억원(16.8%), 모태펀드가 1,016억원(11.5%)을 출자하였으며, 최근 법인화를 마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구,성장사다리펀드)이 3월에 100억원(1.1%)을 신규 출자하였다.

###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단위 : %]

조합원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3	2016.3
정책기관 (모태펀드)	16.9 (11.6)	34.0 (26.3)	27.8 (26.4)	16.7 (14.5)	30.5 (23.3)	33.8 (32.5)	15.6 (11.5)
금융기관 (산은/정금)	23.5 (17.6)	19.6 (7.3)	30.9 (17.4)	22.3 (12.4)	22.7 (4.2)	10.2 (0.0)	39.3 (16.8)
연금/공제회	21.2	10.7	9.0	20.5	4.3	0.0	5.1
벤처캐피탈	13.4	19.4	13.4	11.4	11.8	13.1	19.5
일반법인	12.4	11.7	14.5	9.5	14.2	14.5	12.8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7.9 (0.0)	1.3 (0.0)	1.1 (0.0)	12.9 (11.1)	10.7 (9.3)	11.4 (9.4)	7.0 (1.1)
개인	0.8	0.8	1.9	3.3	3.6	4.6	0.7
외국인	3.9	2.5	1.4	3.4	2.2	12.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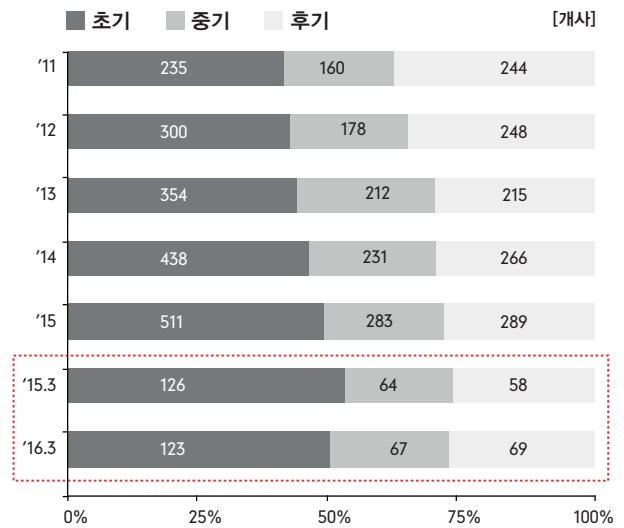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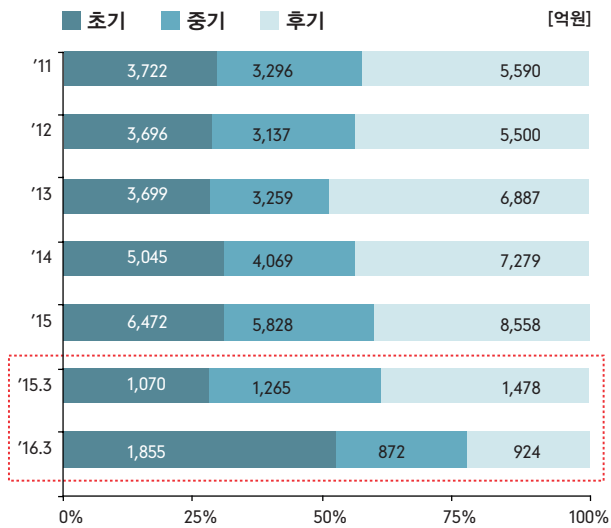
금년 3월까지의 신규투자는 257개사 3,651억원으로 투자금액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년 1~3월 초기기업 투자비중은 전년 동기 28.1% 대비 22.7%p 증가한 50.8%를 기록하였다.

3월에는 리디가 4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프론티어아이피(유)가 40억원, 에잇퍼센트가 38억원, Organ Preservation Solutions Limited가 34억원 순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업력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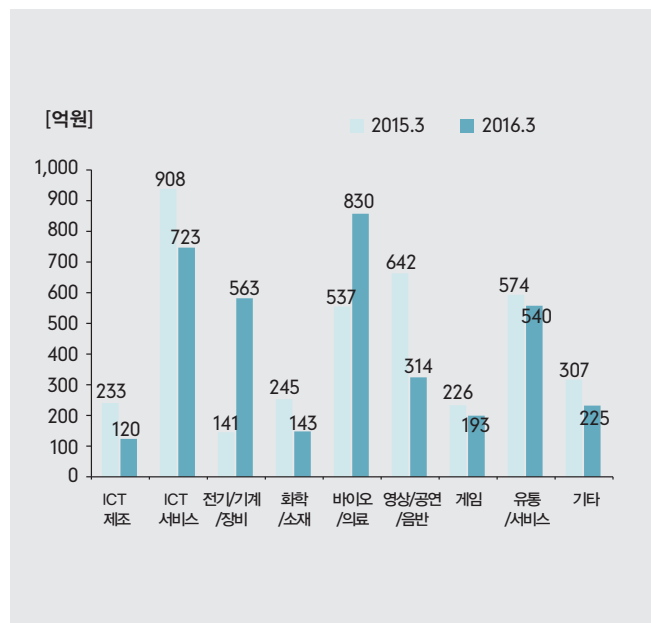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830억원, ICT서비스 723억원, 전기/기계/장비 563억원, 유통/서비스 540억원 순으로 신규투자가 되었으며 전기/기계/장비 분야가 전년동기 대비 가장 큰 폭(42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바이오/의료 분야가 293억원이 증가하며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 업종별 신규투자

[ 단위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3	2016.3
ICT제조	1,754	2,099	2,955	1,951	1,463	233	120
ICT서비스	892	918	1,553	1,913	4,019	908	723
전기/기계/장비	2,966	2,433	2,297	1,560	1,620	141	563
화학/소재	1,266	1,395	989	827	1,486	245	143
바이오/의료	933	1,052	1,463	2,928	3,170	537	830
영상/공연/음반	2,083	2,360	1,963	2,790	2,706	642	314
게임	1,017	1,126	940	1,762	1,683	226	193
유통/서비스	1,270	608	1,092	2,046	3,043	574	540
기타	427	342	593	616	1,668	307	225
합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3,813	3,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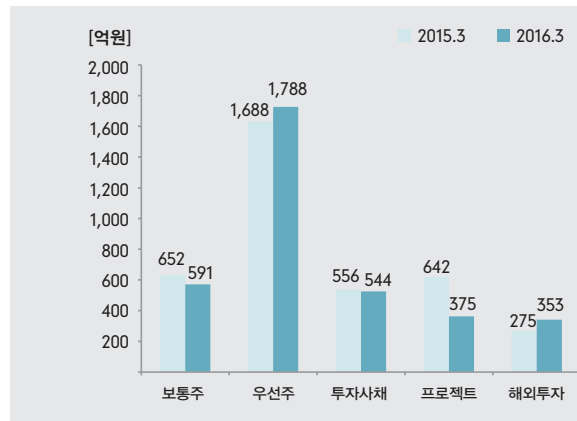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1,788억원으로 전체투자의 49.0%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 4.7%p 증가하였다. 반면 프로젝트 투자는 267억원 감소하였다.

### 유형별 신규투자

[ 단위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3	2016.3
보통주	3,454	2,403	3,425	3,297	4,226	652	591
우선주	4,439	4,887	5,038	6,103	8,786	1,688	1,788
CB/BW	2,061	1,833	3,049	3,276	3,272	556	544
프로젝트	2,247	2,459	1,944	2,681	2,471	642	375
기 타	407	751	389	1,036	2,103	275	353
합 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3,813	3,651



지역별로는 여전히 서울(65.6%)을 비롯한 수도권(81.3%)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기업에도 15개사 291억원이 투자되었다.

### 【 투자회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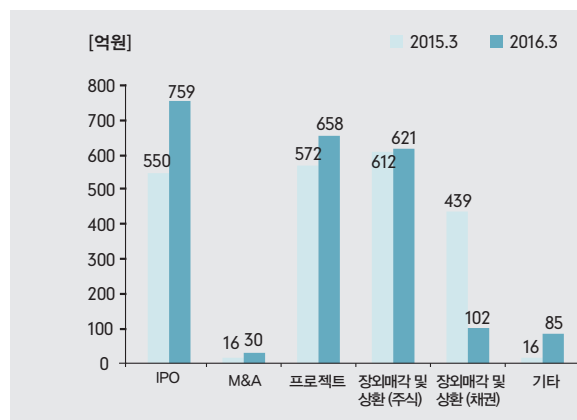
3월까지의 회수원금은 2,255억원이며, 그 중 IPO를 통한 회수가 33.7%로 가장 많았고, 장외매각 및 상환이 32.0%, 프로젝트 29.2%였다.

특히, 3월 프로젝트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분석결과, 70개 프로젝트를 통해 218억원을 회수하였고, 이 중 영화 프로젝트의 회수가 101억원(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 다음으로 공연 75억원(34.3%), 음악 24억원(11.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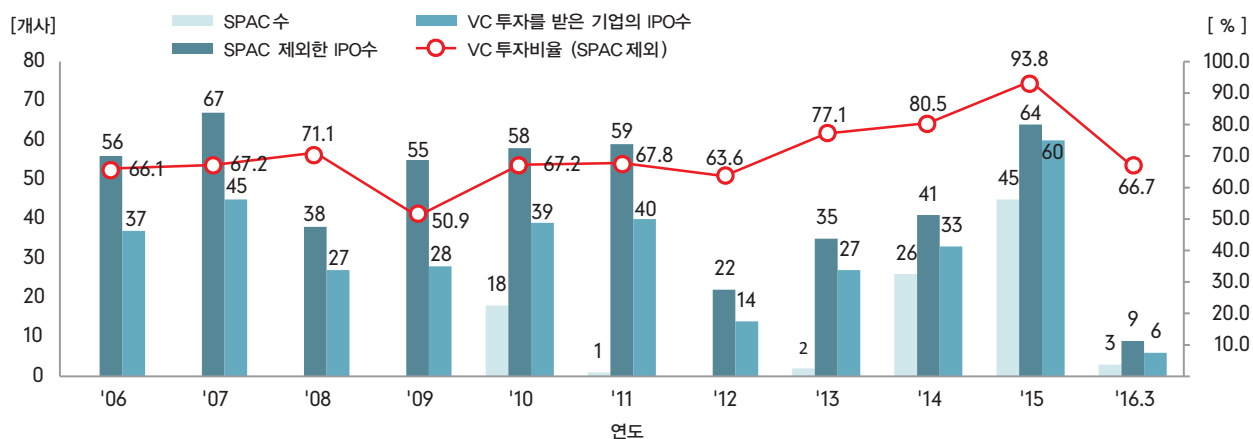
### 유형별 회수현황

[ 단위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3	2016.3
IPO	1,080	1,220	1,072	1,411	2,784	550	759
M&A	86	72	22	163	150	16	30
프로젝트	1,102	1,533	1,613	1,639	1,605	572	658
장외매각 및 상환	2,608	2,655	2,363	3,080	3,724	612	621
채권	1,044	1,165	1,025	1,311	1,614	439	102
기타	37	188	736	217	342	16	85
합 계	5,957	6,833	6,831	7,821	10,219	2,205	2,255



3월에는 코스닥시장에 4개사(아이비케이에스제4호SPAC, 하이에이아이1호SPAC, 에이피위성통신, 팬젠)가 상장되었으며 이 중 팬젠이 VC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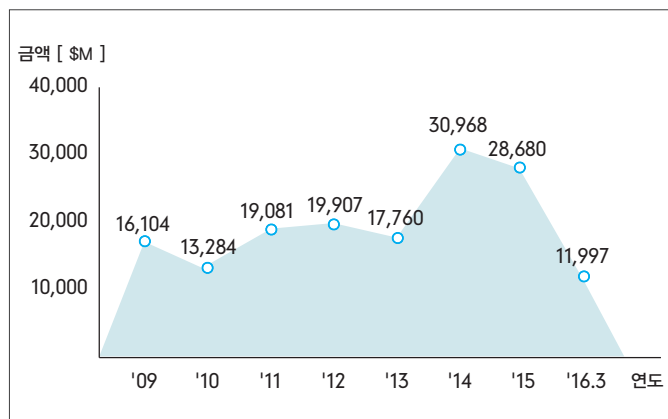




## 1분기 미국 벤처투자시장

### 【 투자자원 】

#### ■ 연도별 펀드 결성 현황



자료원: Thomson Reuters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 분기별 펀드 결성 현황

2016년 1/4분기에는 57개의 펀드가 11,997백만달러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직전분기인 2015년 4/4분기에 비해 결성 금액 기준 118.6% 증가하였다.

#### 최근 분기별 펀드 결성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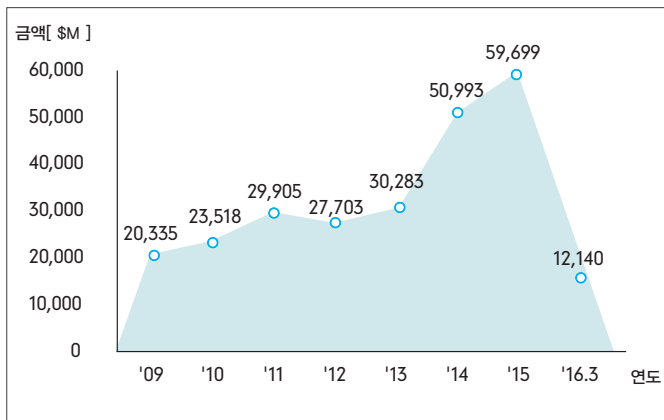
[ 단위 : 개, \$M ]

구분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2016년 1/4분기
펀드수	69	82	65	51	57
결성금액	7,538	11,085	4,568	5,489	11,997

자료원: Thomson Reuters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 신규투자 】

### ■ 연도별 신규투자 규모



자료원 : NVCA-PWC "Money Tree Report"

### ■ 전년대비 투자 규모

2015년 3월까지의 신규투자 실적을 보면, 투자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한 969건을 기록하였고, 투자금액은 11.3% 감소한 12,140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최근 분기별 투자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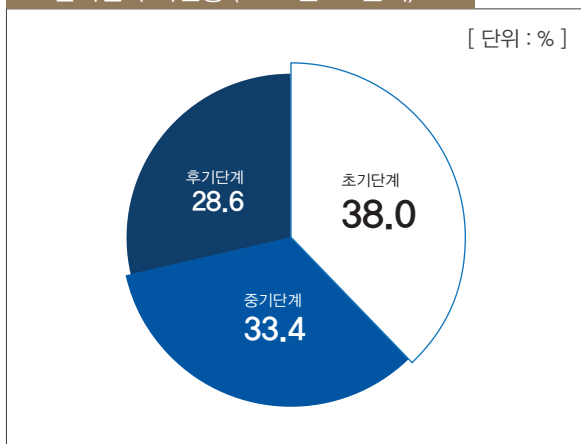
[ 단위 : 개, \$M ]

구분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2016년 1/4분기
투자건수	1,085	1,218	1,173	1,021	969
투자금액	13,691	17,343	16,668	11,996	12,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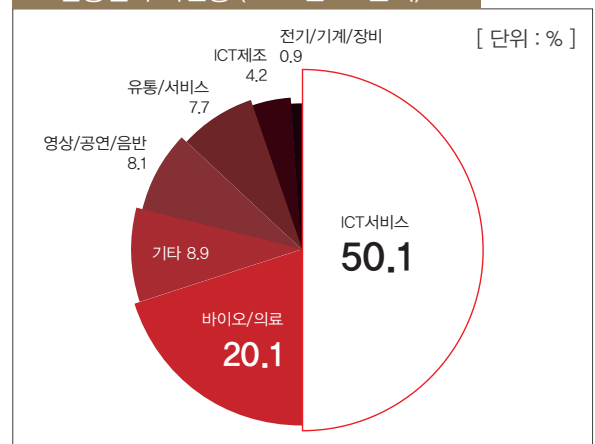
자료원 : NVCA-PWC "Money Tree Report"

### ■ 업력별 및 업종별 투자현황

#### ○ 업력별 투자현황 (2016년 1/4분기)



#### ○ 업종별 투자현황 (2016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업력별 투자비중을 비교해 보면 초기에서 9.3%P 증가한 반면, 중기에서 5.8%P, 후기에서는 3.5%P감소하였다.

### 업력별 투자건수 및 금액

[ 단위 : \$M, % ]

업 력	2015년(1/4분기)		2016년(1/4분기)		전년대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P)
초 기	3,922	28.7	4,618	38.0	696	9.3
중 기	5,370	39.2	4,055	33.4	△1,315	△5.8
후 기	4,399	32.1	3,467	28.6	△932	△3.5
합 계	13,691	100.0	12,140	100.0	△1,551	

자료원 : NVCA-PWC "Money Tree Report"

전년동기대비 업종별 투자금액은 ICT제조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바이오/의료 분야도 소폭 증가하였다.

### 업종별 투자금액

[단위 : \$M, %]

업종	2015년(1/4분기)		2016년(1/4분기)		전년대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ICT제조	349	2.6	1,080	8.9	731	209.5
ICT서비스	6,957	50.8	6,086	50.1	△871	△12.5
바이오/의료	2,418	17.7	2,445	20.1	27	1.1
영상/공연/음반	1,225	8.9	931	7.7	△294	△24.0
전기/기계/장비	113	0.8	112	0.9	△1	△0.9
유통/서비스	682	5	506	4.2	△176	△25.8
기타	1,947	14.2	980	8.1	△967	△49.7
합계	13,691	100.0	12,140	100.0	△1,551	△11.3

자료원 : NVCA-PWC "Money Tre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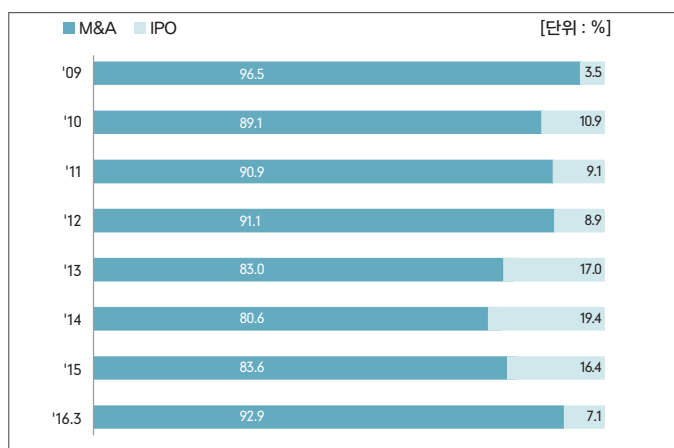
### 【 투자회수 】

#### ■ 연도별 VC 투자기업의 M&A와 I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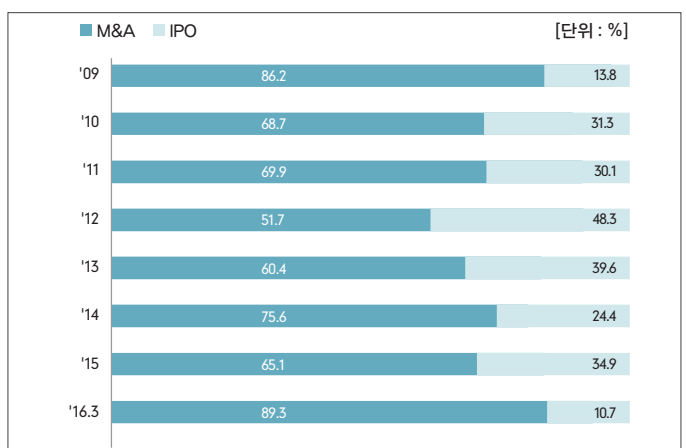
2016년 3월까지 건수기준으로 92.9%가 M&A, 7.1%가 IPO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기준으로는(공개된 거래기준) M&A회수는 89.3%, IPO회수는 10.7%로 나타났다.

#### 연도별 회수유형 비교

##### ○ 건수기준



##### ○ 금액기준



자료원 : Thomson Reuters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2016년 3월까지 VC 지원을 받은 기업의 IPO수는 6건으로 총 offer금액은 574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평균 IPO금액은 9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16년 3월까지 VC 지원을 받은 기업의 M&A 건수는 79건이었으며, 금액이 공개(20건)된 M&A를 기준으로 M&A 총금액은 4,782백만달러를 기록, 평균 거래금액은 23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가 2016년 4월 수시 출자사업과 한국전력모펀드 출자사업의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4월 수시 출자사업은 선정조합수 5개, 모태출자액 261억원, 최소결성액은 1,135억원이며, 한국전력모펀드 출자사업은 선정조합수 1개, 모펀드 출자액 235억원으로 최소결성액은 500억원이다. 또한 4월 29일에는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총 8개분야에 1,660억원 출자 계획으로 결성목표액은 4,350억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5월 3일(화)에는 서초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http://www.k-vic.co.kr)) 참조

### 한국벤처투자 4월 수시 출자사업 선정결과

[ 단위 : 억 원 ]

구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조합명	모태 출자액	최소 결성액
4월 수시	중진	청년창업	데브시스템벤처스	데브-청년창업 투자조합 2호	90	150
			캡스톤파트너스	4:33-캡스톤 청년창업 투자조합	110	160
		수요자제안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Translink 글로벌 파트너쉽 투자조합	30	305
			인터베스트	SEMA-인터베스트 바이오헬스케어 전문투자조합	30	320
		KVF 결성목적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1호	1	200
		합 계				261

### 한국전력모펀드 출자사업 선정결과

[ 단위 : 억 원 ]

구분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조합명	모펀드 출자액	최소 결성액
한국전력모펀드	차세대전력에너지·융합	유류아이파트너스	에너지 융합 UQIP 투자조합	235	500(*)

\* 산업부(KIAT) 추가 출자가 불가능할 경우 최소 결성액을 470억원으로 조정 가능

### 한국벤처투자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 출자계획

[ 단위 : 억 원 ]

분야		모태출자 예정액	결성목표액
중 진	M&A	400	2,000
지 방	지방기업	200	400
특 허	특허기술 사업화	100	200
문 화	융합 콘텐츠	200	300
	콘텐츠 영세기업 및 제작초기	80	120
	CG& 애니메이션	100	20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육성	30	120
	소계	410	740
미 래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90	150
	CG / VFX 전문	120	250
	소계	210	400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100	170
영 화	CG 한국영화	140	240
관 광	창조관광	100	200
합 계		1,660	4,35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슈퍼맨펀드2호'의 운용사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4월 5일 발표된 공고에 의하면 2호 펀드의 최소 결성금액은 200억원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KT가 각각 50억원씩 출자하고 유진그룹 자회사인 유진초저온이 70억원을 지원한다. 출자제안서 마감은 4월 25일까지이다. 한편 '슈퍼맨펀드1호'는 작년 7월 200억원 규모로 결성하여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가 운용사로 선정되었고, 도내 모바일게임관련 콘텐츠기업 3곳에 총 35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 회사명 : 솔레어인베스트먼트(Solaire Invenstment)

솔레어인베스트먼트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우테크'가 9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이다.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올해 2월에 등록되었으며 상근하는 임직원은 총 5명이다.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부문 등의 투자와 제작에 집중할 예정이다.



#### Q. 회사명과 사훈

A. Solaire는 프랑스어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태양처럼 양질의 영상콘텐츠, ICT 융합콘텐츠와 관련 산업에 투자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Eco-system을 만들어 가려는 의미로 사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Q. 회사의 투자전략과 관심분야는?

A. 저희는 영화, 3D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등 영상 콘텐츠와 VR, AR, 홀로그램 등 ICT 융합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의 창작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투자하고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회사의 대표인 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제작과 투자, 배급, 해외합작 업무 등 20년간 업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근 이민호가 출연한 한중 합작블록버스터 영화 "바운티헌터스"와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설국열차", "옥자" 등 50개 해외합작 프로젝트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국내 감독과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합작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중국과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 확대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중점 투자 분야는 ICT 융합디지털콘텐츠 및 기기관련 산업분야 입니다. VR, AR, 홀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융합콘텐츠는 웨어러블기기와 함께 향후 미디어콘텐츠산업의 미래성장 축으로 기대되며, 영상콘텐츠 투자 분야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가진 스토리텔링과 기획력을 가진 중국 등 급성장 중인 해외시장, 해외자본과 결합할 경우 영상 콘텐츠산업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시장확대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Q.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 A. 투자의 원칙은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투자입니다. 투자 수익이 전제되지 않으면, 투자자의 외면으로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합작 프로젝트의 개발과 패키징을 주도하는 관련기업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Q. 직원 채용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 A. 전문성과 신뢰성, 도전적인 사고와 열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스스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Q. 중소기업청 및 협회에 바라는 점

- A. 다양한 산업 내 VC와의 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융복합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종 산업 간 투자기회 및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VC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신규가입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가입일자
케이런벤처스(유)	권재중, 김진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5, 7층 (대치동, 송강빌딩)	(02) 553-9003	(02) 553-9008	4/1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희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19층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02) 2016-7700	(02) 2016-7709	4/1
메디베이트 파트너스	김현국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15층	(02) 536-0704	(02) 536-0733	4/27

## 사무실 이전

회사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캐피탈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즈2차 1901호	(02) 595-7450	(02) 595-7577

##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서울기술투자	이강복, 김재천(공동대표)	김재천	3/29

## 4월 회원사 NEWS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전자제품 개발업체 '이에스비'에 투자한 지 1년 6개월만에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했다. 남아있는 지분을 처분할 경우 투자원금 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익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코오롱 2015 K-ICT 디지털콘텐츠투자조합' 결성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 [소프트뱅크벤처스]

3D현미경을 개발한 벤처기업 '토모큐브'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실시간 세포 관찰 현미경을 인공지능과 결합해 암이나 당뇨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게 한 회사의 기술력에 주목했다.

### [마젤란기술투자]

'K-Growth 클라우드 투스텝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결성하여 첫 투자처로 '아우름플래닛'을 선정하고 3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상환우선전환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공뼈 벤처기업 '이노본'에 3억원을 투자했다.

### [현대기술투자]

펩타이드 전문기업 '나이벡'에 4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최초투자를 진행하였고 독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추가로 투자하였다.

### [디에스벤처스]

옐로금융그룹에 인수된 디에스벤처스가 옐로금융그룹에서 사업 개발을 총괄했던 심재인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심 대표이사는 사업 개발부터 투자 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

#### [유안타인베스트먼트]

태양광 인버터 전문업체 '다쓰테크'에 15억원을 투자했다. '다쓰테크'의 중국 등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산후조리 서비스로 잘 알려진 '와이케이동그라미'에 10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도 했다.

#### [산수벤처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농심캐피탈 출신인 김영철 부사장을 포함해 PEF 운용 인력을 총원하고 모든 벤처펀드에 대해 청산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펀딩에 나서기 위해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상장을 통해 운용사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인터베스트]

코스닥상장사 '지트리비엔티'에 투자한 금액을 1년 만에 대부분 회수하였다.

#### [엠벤처투자]

의료기기업체 '제놀루션'에 총 15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제놀루션'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항바이러스 의약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8월 코넥스에 상장을 완료했다.

####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3년 6개월 여 전 투자했던 벤처기업 '파마리서치프로덕트'로 투자금 대비 16배의 수익을 거뒀다. '알바트로스패스파인더투자조합'과 'KoFC-알바트로스 청년창업 2호 투자펀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처분하면서 총 39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회수했다.

#### [대성창업투자]

'펀드 운용'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체질 개선으로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 [스틱인베스트먼트]

3년 전 투자했던 반도체 설계회사 '동운아나텍'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진행중이다. 6월말 '동운아나텍'은 상장 후 한 달간 보유 지분 매각 작업을 해왔다. 이번 매각건까지 포함해 총 회수한 금액은 29억원이다.

#### [원익투자파트너스]

올해초 투자한 화장품·의약품 제조업체 '인터코스'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코넥스시장 입성을 시작으로 향후 코스닥 이전시장까지 바라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2016년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KVCI) 연간교육일정(안)

구 분	교 육 명	운영 형태	일자
2월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1차)	1일 출석	2.24(수)
	벤처캐피탈연수원 전문 강사 세미나	1일 출석	2.26(금)
1학기 (3월~6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 과정(연세대)	-	-
4월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1차	1일 출석	4.6(수)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3일 출석	4.19(화)~21(목)
5월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2차	1일 출석	5.3(화)
	벤처캐피탈 바이오 advanced 과정	4일 출석	5.17(화)~20(금)
6월	제20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5박 6일	6.13(월)~18(토)
		3일 출석	6.22(수)~24(금)
7월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학(원)생 단기체험 과정	2박 3일	7.4(월)~6(수)
	벤처캐피탈 실무 심화 과정	4일 출석	7.11(월)~14(목)
8월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초급과정	3일 출석	8.24(수)~26(금)
2학기 (9월~12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예비인력 양성 과정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대전, 서강대)	-	-
9월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2박 3일	9.28(수)~30(금)
10월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2차)	1일 출석	10.6일(목)
	제21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5박 6일	10.17(월)~22(토)
		3일 출석	10.26(수)~28(금)
11월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3차	1일 출석	11.9(수)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3차)	1일 출석	11.23(수)
12월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고급과정	3일 출석	12.7(수)~9(금)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 : 정지영 부장, 손필수 과장, 이은정 연구원, 이신재 연구원 / 02-2156-2102,2128,2113,2106)

---

발행일 : 2016년 5월 / 발행인 : 이용성 / 편집인 : 이의준

발행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층 (TEL: 02-2156-21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층  
[www.kvca.or.kr](http://www.kvca.or.kr)